

불교에 관심있는 유럽인 사로잡다

라마여, 이 노래가 당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걸인이 산의 고독 속에 머물도록 부디 축복해 주소서.

저의 행복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저의 고통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산의 고독 속에서 죽게 되면 이 요기의 소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제가 늙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게 떠나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병들면 제 누이들이 눈치 채지 않게 해주소서.
산의 고독 속에서 죽게 되면 이 요기의 소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제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해주소서.
저의 색어가는 육신을 천상의 새들이 보이지 않게 실어가도록 해주소서.
산의 고독 속에서 죽게 되면 이 요기의 소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문상객들이 찾아와 저의 시신을 지키지 않도록 해주소서.
죽음이 찾아오면 한탄과 비탄 소리 들리지 않도록 해주소서.
산의 고독 속에서 죽게 되면 이 요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걸인이 죽음을 어떻게 여기는지 저의 노래가 알렸습니다.
어떤 인간존재도 머물지 않는 골짜기 동굴 안에서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한 힘이 생겨나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날, 저의 소원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밀라레빠의 노래 중에서



30년간 티베트불교 체험한 독일 여성작가가 쓴 명상 구도 소설...유럽서 호평



수레바퀴 길
올리 올베디 | 김인순 역
조화로운 삶 | 1만5800원

‘사람은 왜 고통 받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는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무엇인가’
공상을 즐기고 입심 선 열여섯의 소녀 마일리. 마일리는 부모님의 비명횡사를 겪은 후 인간 삶의 본질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부처님이 해답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 마일리는 삶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의 길을 찾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네팔의 산골짜기 고향마을을 떠나 카트만두 접접산중의 비구니 사원으로 향한다. 마일리는 그곳에서 두 친구 슈미와 페마,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선사하는 비구 최남을 만난다. 또 티베트 불교의 신비로운 세계와 심오한 지혜, 환생과 업보, 중유의 세계, 탄트라, 명상 수행, 티베트 민간신앙을 이해하기도 한다.
마일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며, 영적 성숙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요가 수행자 니마를 만나으로써 목표에 더욱 접근한다. 마일리는 지혜로운 스승의 도움을 받아 탄트라와 기요가의 비밀스러운 세계에도 입문하며, 마침내 무한히 넓은 허공 속에서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 세상 만물과 하나되는 것을 체험하는 경지에 이른다. 비구니가 되어 탄트라와 요가의 신비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고 외설 왕모로 거듭나는 마일리는 이후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서 넓은 세상을 향해 길을 나선다.

《수레바퀴 길》은 소설 형식으로 실제 이론과 사상을 허구의 현실에 정교하게 엮어 넣어 명상과 구도라는 낯선 세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흥미 있고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그래서 불교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다.

주무대가 ‘불교와 달라야 라마의 나라’, ‘스투파와 만년설의 나라’라는 뇌내입담에 강렬한 한내음과 문순의 빛줄기가 교차하는 티베트 지역인 것도 관심 끌기에 한몫 한다.

한 유럽의 빛이 스며드는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을 배경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펼쳐지는 구도 이야기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깨달음의 여행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경험하는 구도의 길은, 가르침을 좇는 절제된 자기 수행과 사랑을 찾는 젊은 여인의 꿈과 욕망이 대비되는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엄밀하게 규정한다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명상 구도 소설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수행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우정, 규율에 대한 순종과 반항, 전통의 보존과 현대사회의 요구가 빛어내는 갈등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이면서 순박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은 티베트 불교대학에서 공부했고, 최기 니마 린포체에게 영적 가르침을 받은 독일 작가 올베디가 30여 년간의 티베트 불교 체험을 한 뒤 쓴 작품이다. 그녀는 안거 명상 도중 순간적으로 영감이 떠올라 글을 써내려갔다고 한다.

이 소설은 다난하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삶의 표표를 찾아 스스로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힘을 일깨워 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 만큼 ‘불교의 정신세계를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이론 서적보다 《수레바퀴 길》을 손에 드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이 책을 읽은 유럽인들의 평가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늦가을에 어울리는 시화집...마음에 끌리는 그림 하나

나비부인 신석주 지음, 토우
우연히 마주친 시집 한권...
예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시간에 짬짬이 책을 읽었다.
최근에 학교생활 때문에 책과 거리가 멀어졌기에...
가을이 되면서 책과 다시 한번 친해지고 싶어 서점을 찾았다.



이래저래 책을 찾다가 계절이 계절인 만큼 시집을 한번 읽어 보기로 하고 책을 찾는데 마음에 드는 서양화가 담겨있는 시화집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서양화가 신석주의 시화집이다. 예술가 특유의 창의적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의 갈등요소를 울려 퍼지는 그림과 글로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을 구입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천천히 시집을 들여보기를 시작하였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53페이지에 <가을수레>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 한 폭이었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림이다. 그 그림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곤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중이라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시집이다.

(srphan, lifelog.blog.naver.com/srphan/r02_srphan_1)

책속의 밑줄긋기

인간은 습관의 창조물...과거에 선택한 것이 나를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길거리를 걷는 어린아이가 쉽게 장난감 가게들을 발견 하듯이, 각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인식은 선택적인 것이다.
인간관계, 도덕성, 직업, 건강, 질병, 고통, 죽음 그리고 초월과 같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나, 가장 큰 요인은 업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선택한 것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즉 우리는 습관의 창조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생각이나 행위나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하기 쉬운 일을 따른다. 이러한 일들은 미묘한 몸매 정확하게 새겨진다. 이러한 개념에 우리는 자신의 구슬들이 잘못된 것이고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도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의식과 함께 생명력이 흐르는 길을 직접 변화시켜야 한다.

-<탄트라> 본문 157쪽, 게오르그 호이에른슈타인 지음, 여러

모든 사람안에 내재한 신성한 사랑 '자비'

○...자비와 자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비는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우리 나오는 사랑으로서 그 실천에 있어서 행위자 자신, 가정, 계급, 국가를 뛰어넘는다. 반면에 자애는 행위자 자신, 가정, 계급,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란 스스로 우러나고 인간을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라마크리슈나에게 있어 자비는 모든 사람안에 내재하는 신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 속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 안에 있는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마크리슈나는 참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고난 신성을 실현하는 일과 타인을 돕는 봉사의 동기에 관한 자기성찰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르지도 않습니다. 단지 동일한 정신상태에 대한 두가지 양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라마크리슈나> 본문 252쪽에서, 로맹 톨랑 지음, 정신세계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오보인의 책들
대원 문제해결 신사상역사 / 지기

<바오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경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해결 신사상역사 일체종자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제해결 신사상역사 제작자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자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파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달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2-3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 분말
청국장 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말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재두 100%

친환경 유기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청국장 분말과 환

▶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 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말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도방에서 숙성, 배시된 콩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박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010-4634-4311 청국장 환 1kg 25,000원
1kg 12,000원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술갈에는 한겨울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쌀, 수수, 조, 검정찰, 옥수수)과 옛 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사척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매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땀·턱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38,000원
천연물엿 웰빙 자연 당 1.1kg = 18,000원 (x2봉)

산사조청원의 명품

솟아오르지 않는 山寺참꽃 조청 1.2kg
이철, 냉중, 위장장애,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절, 항암, 항기혈병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